

더블10 윈도우를 섬기며

- 이 아브라함 선교사 / 2003.5.16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인 선교사 이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저는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회교도들과 토착원주민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선교지를 방문한 이래 일년에 두 차례씩 단기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들을 치료해주면서 저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선교사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해져서 마침내 저는 1992년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동남아시아의 더블텐 윈도우 지역에서 사역해 왔습니다. 더블텐 윈도우란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10도와 남위 10도 사이의 창문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말레이어가 두루 통용되는 동남아의 회교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정글이나 도서 산악지역에서 원초적 삶을 사는 토착 부족들과 정권을 쥐고 있는 회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회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전도와 역라마단 운동 그리고 땅밟기 중보기도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토착 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 그리고 전도집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토착부족들과 회교도들을 섬기면서 경험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차로 이반족을 입양하여 섬길 때의 일입니다. 한번은 암으로 죽어가던 한 영혼을 만나 전도하였는데 그 마을에서 그 분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녀는 우리가 떠난 후 서너 시간 만에 소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약 3년 전 말레이시아 회교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저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부수상이었던 안와르 이브라힘은 한 때 회교청년연맹의 회장으로써 강성 회교도였습니다. 그는 현 마하티르 수상의 후계자로 내정된 자였는데 저희는 그가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 선교에 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 그가 집권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가 동성애라는 누명을 쓰고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역자의 부족입니다. 저는 여러 지역을 개척하고 여러 모양의 사역 유형을 개발하였지만 정작 그 길을 같이 달려갈 사역자가 없다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년 후 다음 사역에서는 청년, 대학생

들을 선교 훈련하는 사역에 비중을 더 두려고 합니다. 선교사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면을 강조하며 팀사역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도록 약 1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기초 영성 훈련과 전도훈련 그리고 언어훈련을 집중하여 실시하려 합니다. 젊은이들을 선교 동력화하는 일에 한국선교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선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충성된 삶의 자세를 견지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열정도 중요하나 선교의 대장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에 임할 때 조금씩 행치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기성, 일회성 사역보다는 연속성을 가진 지속성 사역을 추구하시도록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